

GIST, '멘토-멘티 데이' 개최

GIST 재학생이 지역 중고등학생 과학 수업 및 진로 상담하는 '랜선 멘토링'의 오프라인 만남

- GIST 사회공헌단 지식 나눔 프로그램 '랜선 멘토링'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만 소통해 오던 멘토-멘티의 오프라인 대면 기회 제공... 멘티-멘토 51명 참석
- 네이버웹툰 서버 개발자로 재직 중인 GIST 졸업생의 진로 특강, 입학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"멘토 선생님 실제로 볼 수 있어 너무 좋아"



▲ GIST 사회공헌단이 '멘토-멘티 데이'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**11월 16일(토) 오룡관에서 '멘토-멘티 데이'를 개최**했다고 밝혔다.

올해 '멘토-멘티 데이'에는 봉선중학교 등 **광주·전남 지역 중고등학생 멘티와 GIST 재학생 멘토 등 총 51명이 참석**했다.

GIST 사회공헌단 '피움(PIUM)*'은 지난 2021년부터 인근 중고등학생(중1~고3)에게 흥미로운 과학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**이공계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지식 나눔 프로그램인 '랜선 멘토링'을 운영**하고 있으며, 올해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**GIST 재학생 31명이 멘토로 활동**하고 있다.

'랜선 멘토링'은 매년 3월 접수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학기 중 매주 주말 실시간 온라인 회의 플랫폼(Zoom)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간 총 16회 과학 수업(회당 90분) 및 진로 상담이 이뤄진다.

* **피움(PIUM, P: positive, I: interaction, U: understanding, M: mind)**: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어 우리 사회에 꽃을 피워 GIST의 향기를 퍼뜨리자는 의미

'멘토-멘티 데이'는 그동안 온라인으로 소통하던 멘토와 멘티에게 오프라인 대면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보다 생생한 진로 멘토링을 통해 학업 상담과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처음 개최된 후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.



▲ GIST 멘토-멘티 데이에 참석한 광주·전남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GIST 재학생 멘토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.

이날 '멘토-멘티 데이'에서는 네이버웹툰에서 서버 개발자로 재직 중인 **홍유진 동문** (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·2021년도 졸업)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**진로 특강**을 듣는 시간도 마련되었다.

GIST에서의 대학 생활과 졸업 후 네이버에 들어가게 된 계기, 서버 개발자로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등 **진로 선택**과 현장에서 겪은 과학기술 분야 선배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다.



▲ 네이버웹툰에서 서버 개발자로 재직 중인 GIST 홍유진 동문이 진로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.

홍유진 동문은 “홍보대사, 춤 동아리, 교환학생, 신문사 경험 등 하고 싶은 것 모두를 경험하게 해 준다는 GIST의 모토가 제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”면서 “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큰 행운이며, 여러분들도 대학생이 되면 한 번뿐인 대학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,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경험해 보면 좋겠다”고 조언했다.

또한 입학팀이 진행한 입학설명회는 GIST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중고등학생 멘티들의 관심을 모았다.

한편 외국인 재학생 멘토로 올해 초 선발된 이란 국적의 파테메(Fatemeh) 박사과정생은 외국인 학생으로서 GIST에서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어 흥미를 끌기도 했다.

이날 참석한 멘티 학생 중 한 명은 “GIST 캠퍼스에 방문하여 멘토 선생님을 실제로 뵙게 되어 너무 좋았다”며 “평소에 궁금했던 대학 생활과 전공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”고 말했다.

김재관 대외협력처장은 “앞으로도 GIST는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과학기술 분야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전한 과학문화를 확산하고 미래 과학인재 양성의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